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4-9】

2014. 4. 23.

## 아세안 신흥국 내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기회요인

### 목 차

I. 아세안 신흥국 진출 현황 .....	1
II. 주요 기업경영 애로사항 .....	3
III. 아세안 신흥국의 기회요인 .....	7
IV. 시사점 .....	10

국별조사실

작 성: 책임조사역 임영석 (3779-5704)  
yslim@koreaexim.go.kr

확 인: 실 장 김주영 (3779-5702)  
jykim@koreaexim.go.kr



■ 중국 내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신흥국<sup>1)</sup>이 대체투자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동 국가들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수익성이나 제조업 투자금액은 최근 하향 추세를 시현함. 이를 감안하여, 상기 국가들의 기업 경영여건과 기회요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I. 아세안 신흥국 진출 현황

### □ 중국의 대체투자지로 아세안 신흥국에 대한 관심 고조

- 중국은 얼마 전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최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축소 등으로 가공 무역 기지로서의 매력에 감소하고 있음.
  - 최근 연평균임금상승률(1998년~2013년)이 14% 수준에 달하며, 생산가능 인구 비중 하락, 연해 지역의 노동력 부족, 젊은 세대의 3D 업종 근무 기피, 최근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에서의 인건비 부담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자원 다소비 및 단순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 증세 환급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음.
- 중국의 대체투자지로 아세안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2년까지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2012년 아세안 신흥국 앞 FDI 유입액은 538억 달러로, 러시아와 인도에 대한 투자액보다 많으며 대 중국 FDI 유입 규모의 44.4% 수준에 달함.
  - 2013년 7월 미래학자 G. Friedman이 중국을 이을 유망 제조업기지로 선정한 ‘PC(Post-China) 16’ 중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6개 아세안 신흥국이 포함되었음<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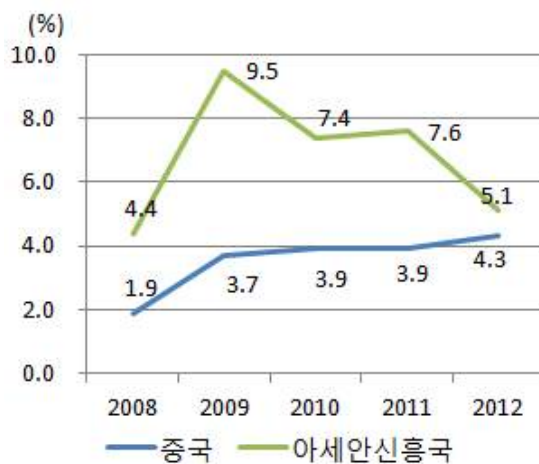
1)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8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2) 나머지 10개국으로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멕시코, 페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가 있음.



## □ 아세안 신흥국 진출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투자액은 모두 하락세

- 아세안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9.5%에서 2012년 5.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2009년 3.7%에서 2012년 4.3%를 기록하면서 소폭이나마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아세안 신흥국의 제조업 및 광업 부문 진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 우리기업의 아세안 신흥국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4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32.7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 특히, 동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금액은 2010년 22.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총 제조업 투자금액에서 동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7.9%까지 하락함.
- 다만, 동 국가들 앞 투자한 신규법인수 및 총 신규법인수 대비 비중은 최근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 \* (법인수) 156건('09) → 224건('10) → 302건('11) → 266건('12) → 361건('13)  
(비 중) 17.3%('09) → 19.1%('10) → 27.2%('11) → 27.5%('12) → 31.6%('13)

◁그림 1▷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영업이익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2 회계연도 해외 직접투자 경영분석, 2013.12.

◁표 1▷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투자실적

(단위: 억 달러, %)

구분	아세안 신흥국		중 국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09	5.0	10.8	17.3	37.2
'10	22.1	30.4	27.8	38.1
'11	21.3	23.5	28.4	31.2
'12	20.5	25.5	25.4	31.7
'13	17.1	17.9	44.7	46.9

\*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투자 총액 대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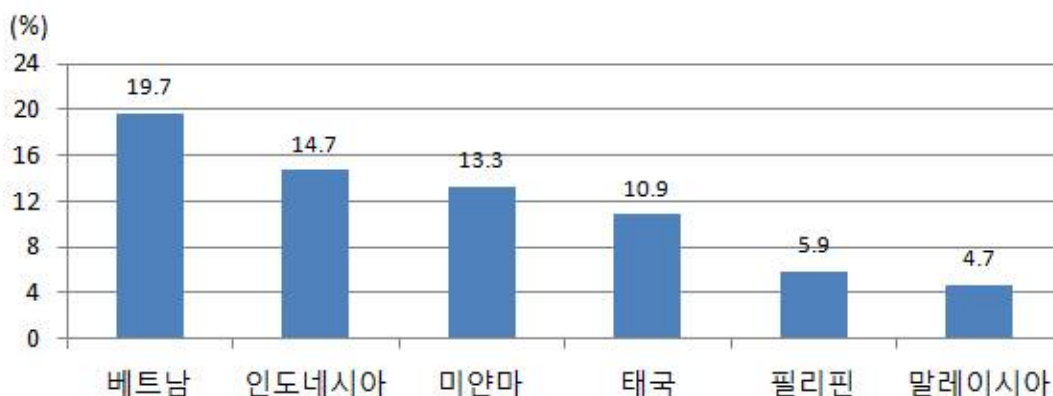


## II. 주요 기업경영 애로사항

### □ 급속한 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

- 고성장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심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정책,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른 노동자 수요 확대 등으로 아세안 신흥국 대부분에서 임금 수준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 일본 Jetro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에서 전년 대비 임금인상률(2012년 기준)은 10%를 상회하였으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5% 내외에 그침.
  - 베트남의 경우 2010년 이후 고물가로 인해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4년에도 최저임금이 약 15%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0년 이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19%에 달함<sup>3)</sup>.
  - 태국에서는 잉락 총리의 선거 공약에 따라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sup>4)</sup>도 노동운동이 거세지면서 2014년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걸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미얀마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나, 개방 이후 외국인투자 확대로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있음.

<그림 2> 주요 아세안 신흥국의 임금 인상율



주: 캄보디아, 라오스는 자료 없음

자료: JETRO, *Survey of Japanese-Affiliated Companies in Asia and Oceania (FY 2013 Survey)*, 2013. 12.

3) 베트남 노동보훈부가 국가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

4)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됨. 참고로, 자카르타 특별주의 2014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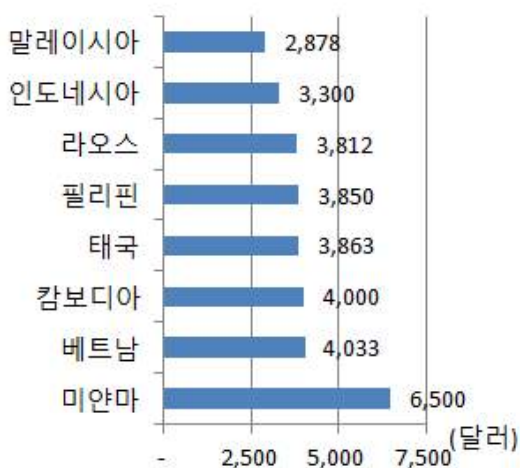


- 임금 상승은 아세안 신흥국에 기진출한 일본 기업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리핀, 라오스를 제외한 6개 아세안 신흥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60% 이상이 임금인상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하였음.
- 특히, 인도네시아(87.5%), 베트남(78.2%), 미얀마(76.9%), 태국(73.4%)에서 지역 평균(70.9%)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말레이시아(70.5%), 캄보디아(63.3%), 라오스(47.8%), 필리핀(41.8%)

### □ 지지부진한 인프라 개선으로 물류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일본 Jetro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수출시 아세안 신흥국의 컨테이너 당 운반비는 2,900~6,500 달러 수준으로 중국(2,700 달러), 싱가포르(3,000 달러)를 상회하는데, 이는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아세안 신흥국에서 교통, 전력 등 인프라의 취약성이 고질적인 경제발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별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이 적극 추진되었으나 개선은 더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신흥국의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평가 대상국 149개국 중 하위 그룹에 포진되어 있음.

<그림 3> 대 미국 수출시 물류비



<표 2> 인프라 부문 경쟁력 순위

국가명	'11년	'12년	'13년
말레이시아	26	32	29
태국	42	46	47
인도네시아	76	78	61
베트남	90	95	82
라오스*	-	-	84
필리핀	105	98	96
캄보디아	107	104	101
미얀마*	-	-	141

주: 1) 40ft 컨테이너 당 운송비(2012년 기준)  
 2)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해당국 소재 도시별 물류비의 평균  
 자료: JETRO,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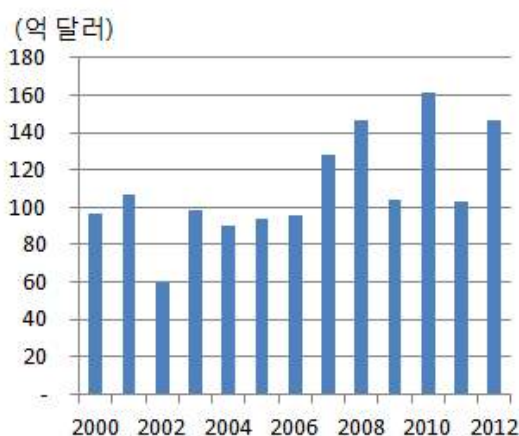
\* 라오스, 미얀마는 2013년부터 평가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해당연도).



○ 특히, 아세안 신흥국들의 재정 부족은 인프라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낮은 소득수준, 비효율적인 과세체계,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이들 국가는 대체로 인프라 개발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자원 조달을 위해 MDB<sup>5)</sup>와 선진국의 원조자금과 민간자금(PPP 포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이들 국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유입된 민간자금 규모는 대체로 100억 달러 중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그림 4> 인프라 개발 관련 민자 유입액



자료: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Project Database.

<표 3> 고등교육 부문 경쟁력 순위

국 가 명	'11년	'12년	'13년
말레이시아	38	39	46
인도네시아	69	73	64
태국	62	60	66
필리핀	71	64	67
베트남	103	96	95
라오스*	-	-	111
캄보디아	120	111	116
미얀마*	-	-	139

\* 라오스, 미얀마는 2013년부터 평가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해당연도).

## □ 양질의 노동인력 부족과 태만한 근로태도도 문제

○ 아세안 신흥국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4개국<sup>6)</sup>의 고등교육 부문은 최근 중국 이상으로 평가될 정도로 발전하여 고급인력 공급 여건이 개선되었음. 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여전히 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어 현지 기업들이 고급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고등교육 부문 순위는 중국(70위)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4개국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임.

5) 다자간개발은행(Multinational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있음.

6)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에도 고급인력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고급인력 대부분이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현지 진출업체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커지고 있음.
- 한편, 일본 기업들은 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에서 현지 직원의 성과인식(performance awareness) 부족을 주요 5대 애로사항의 하나로 지목함.
  - 특히, 캄보디아(76.0%), 미얀마(69.2%), 필리핀(62.1%), 베트남(60.9%)에서 60%를 상회하는 응답률을 나타냄.

**□ 환율 급변, 비효율적 관세행정, 전력 공급 불안정 등 국가별 요소도 상존**

- 2013년 중반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한 이후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세안 신흥국의 환율이 급변하면서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음.
- 또한, Jetro의 조사에 따르면, 관세행정의 비효율성(인도네시아, 베트남),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미얀마)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음.

**<참고: 국가별 5대 경영 애로사항 및 응답률(복수 응답)>**

(단위: %)

1. 말레이시아		2. 필리핀	
임금인상	70.5	현지직원의 성과인식 부족	62.1
현지직원의 성과인식 부족	52.7	원부자재 현지 조달 곤란	62.1
비용절감의 어려움	52.7	근로자의 질	49.3
주요 바이어의 가격 압박	50.7	환율의 불안정성	42.1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	49.6	임금 인상	41.8
3. 태국		4. 캄보디아	
임금인상	73.4	원부자재 현지 조달 곤란	78.6
현지직원의 성과인식 부족	57.3	현지직원의 성과인식 부족	76.0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	55.5	현지 경영자 채용 곤란	64.0
근로자의 질	51.4	임금 인상	63.3
현지 경영자 채용 곤란	48.7	근로자의 질	63.3



<참고(계속) : 국가별 주요 경영 애로사항 및 응답률(복수 응답)>

(단위: %)

5. 인도네시아

임금인상	87.5
관세행정의 비효율성	63.0
현지직원의 성과인식 부족	56.9
환율의 불안정성	55.9
금융비용 증가	54.7

6. 라오스

현지 경영자 채용 곤란	68.2
원부자재 현지 조달 곤란	63.6
일반 근로자 채용 곤란	54.5
중간급 관리자 채용 곤란	52.2
임금 인상	47.8
낮은 장기근속 비율	47.8

7. 베트남

임금인상	87.2
원부자재 현지 조달 곤란	71.0
복잡한 통관 절차	64.5
현지직원의 성과인식 부족	60.9
품질 관리 곤란	49.3

8. 미얀마

원부자재 현지 조달 곤란	100.0
전력 부족 및 단전	100.0
임금 인상	76.9
근로자의 질	76.9
현지직원의 성과인식 부족	69.2

자료: JETRO, *op.cit.*

### Ⅲ. 아세안 신흥국의 기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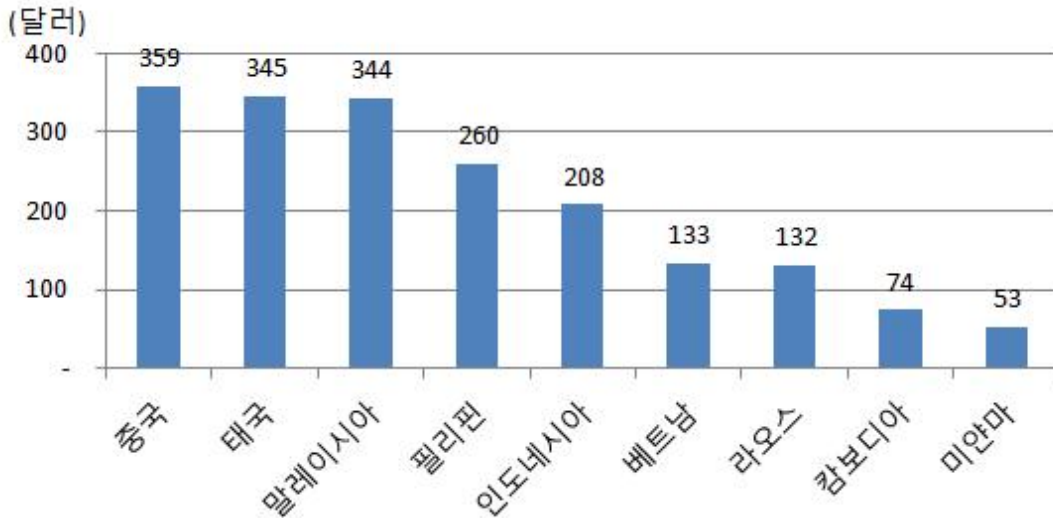
#### □ 중국 대비 여전히 낮은 임금수준 유지

- 최근 임금 상승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세안 신흥국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국, 말레이시아의 인건비 수준은 중국과 비슷하지만, 나머지 5개국은 100달러 가량 낮은 상황임.
-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층의 분배 요구 강화 등으로 아세안 신흥국의 임금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대비 상대적 인건비 수준은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시진핑 정부는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인건비 상승률이 당분간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국가별 일반 근로자의 월 인건비 현황



주: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대련, 선양, 칭다오, 우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바탐), 필리핀(마닐라, 세부),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의 경우, 해당국 소재 도시별 임금의 평균

자료: JETRO, *op.cit.*

### □ 적극적인 역내외 경제통합 추진

- 10개 아세안 회원국은 2015년을 목표로 ASEAN 역내 상품, 서비스, 숙련 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 AFTA<sup>7)</sup>,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회원국간 경제규모와 발전 수준의 차이, 국가간 소득 격차, 강력한 주도국 부재 등이 2015년 AEC 설립 목표 달성의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FTA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교역 규모 증가 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7)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10개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1993년 출범



**<표 4> 아세안 및 아세안 신흥국의 FTA 추진 현황**

국가명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ASEAN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EU, RCEP <sup>8)</sup>	대만, 파키스탄
태국	뉴질랜드, 페루, 중국, 일본, 호주, 라오스	EFTA <sup>9)</sup> , EU, 미국, 인도, 칠레, 바레인, BIMST-EC <sup>10)</sup>	Mercosur, 캐나다, 파키스탄,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칠레	EU, TPP <sup>11)</sup> , EFTA <sup>9)</sup> , 미국, 터키	한국, GCC <sup>12)</sup> , 시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EFTA <sup>9)</sup> , 호주, 인도, 한국	칠레, 미국
필리핀	일본	-	파키스탄, 대만, 미국
베트남	칠레, 일본	EU, TPP <sup>11)</sup> , EFTA <sup>9)</sup> , 한국,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라오스	태국	-	-
미얀마	-	BIMST-EC <sup>10)</sup>	-

주: 캄보디아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자료: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http://aric.adb.org>)

- 8)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자 협정
- 9)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960년 출범
- 10) 벵갈만 다분야 경제기술협력기구(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 등 7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 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5년 출범한 경제통합체로, 2008년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힌 이후 참여 희망국이 증가하여 현재 총 12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및 기존 4개 회원국)이 협상을 진행 중
- 12)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1년 출범



## □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

- 아세안 신흥국은 일인당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규모가 작아 대체로 가공 생산기지로서의 입지조건에 중점을 둔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점차 내수시장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BMI에 따르면, 8개 아세안 신흥국의 세계 GDP 점유율(명목 GDP 기준)은 2012년 2.8%에서 2022년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매력 기준 GDP 성장률은 동 기간 동안 연평균 6~9%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세안 신흥국의 인구는 2012년 6억 명에서 2020년 6.6억 명, 2030년 7.1억 명까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IV. 시사점

### □ 제3국 시장 개척의 교두보와 향후 수출 시장으로서 매력도 충분

-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역내외 경제통합 추진으로 아세안 시장과 함께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기업의 제3국시장 개척의 교두보로서 아세안 신흥국의 활용가능성이 높음.
  - 2014년 3월말 현재, 아세안 신흥국에 투자한 우리 신규법인 수는 8,720개, 투자액은 306.4억 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전체 신규법인수와 투자액의 14.6%, 12.5%를 차지함.
- 또한,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의 내수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총수출액 대비 아세안 신흥국 앞 수출액 비중은 2010년 최초로 8%대를 돌파한 이후 급속히 상승하면서 2013년에는 10.7%를 기록함.



## □ 현지 사정을 감안한 기업의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화 강화 필요

- 기업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진출기업은 인력, 부품 등 역내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공정자동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현지 적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여 현지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전에 진출 국가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현지 정치사정, 노동계의 압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인건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 수립이 요구됨.
  - 성과인식 부족이 문제가 되는 국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성공 여부가 진출 성공을 결정할 수 있으며, 미얀마, 베트남 등 원부자재 현지 조달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동반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ODA 자금 활용도 가능

- ODA<sup>13)</sup> 자금을 현지 진출여건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정부가 간접적으로 현지 진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소요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각종 인프라 건설, 직업훈련원 및 고등교육기관 설립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EDCF<sup>14)</sup> 자금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이나 소형 인프라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KSP<sup>15)</sup> 또는 기타 무상원조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임영석 (3779-5704)  
 yslim@koreaexim.go.kr

13)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14)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우리나라의 유상원조를 담당

15)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교육·연수가 통합된 형태로 수행되는 한국형 경제개발 정책건설형 프로그램